

을유문화사 정진숙 회장 회고록 《출판인 정진숙》
작지만 큰 울림 주는 죽비와도 같은 책

글_장동석 기자 | 일러스트_을유문화사 제공

을유문화사 창립자 정진숙(96) 회장의 출판 인생을 담은 회고록 《출판인 정진숙》이 최근 출간되었다. 해방되던 해인 1945년 겨울, 집안 어른인 위당 정인보 선생의 권유로 민병도, 윤석중, 조풍연 등과 함께 을유문화사를 창립한 정진숙 회장은 1946년 《가정글씨체첩》을 시작으로 〈한국사〉 〈세계문학전집〉 〈을유문고〉 시리즈 등 지금까지 7,000여종의 양서를 출간하며 한국 출판 역사의 초석을 다졌다.

사실 《출판인 정진숙》은 2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정진숙 회장의 말이다. “2005년, 을유문화사 창립 60주년을 맞았을 때였다. 편집부장으로부터 나의 회고록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손사래부터 쳤다. 스스로 돌이켜보건대 뭐 그리 내놓을 만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기특이나 필요한 책을 출판하기도 벅찬 현실에 불필요한 노력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진은 “사실상 출판 1세대로서 후학들과 술한 출판인들을 위해 보다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정 회장을 설득했고, 그렇게 2년의 줄다리기 끝에 《출판인 정진숙》이 탄생했다.

정진숙 회장은 “만년(晩年)의 소일거리치고는 무척 혹독한 것이었다”고 회고록 작업의 고단함을 고백하면서도 “돌이켜보니, 을유문화사의 오늘과 나의 삶이 결코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회고한다. 지난 60여 년 간 을유문화사의 책을 읽었던 술한 독자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던 필자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국내외 지인들의 격려와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을유문화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진숙 회장은 을유문화사와 함께 한 지난 세월을 “서향(書香)과 사람 향기에 젖어 살아온, 보람과 열정으로 점철된 나날”이라면서 “당초 출판을 시작할 때의 은밀한 기대처럼 다양한 지식을 중형무진으로 습득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60여 년을 “꾸준하고 착실하게...” 출판 외길을 걸어온 정진숙 회장의 삶이 오롯이 담긴 회고록 《출판인 정진숙》은, 이제 막 출판의 문에 들어선 이들도 베스트셀러 조급증에 빠져버리고 마는 세대에 작은 소리이지만 큰 울림을 주는 ‘죽비’ 와도 같은 책이다. **한글**

